

# 가족정책 국내동향

2024년 1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근로자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 대기업 7곳, 중소기업 3곳 가족친화 모범 '최고기업' 신규 지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18']  
[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sessionId=atwub7ZLhLAeN6sqpEUL5mogef10?mid=news4058bbtSn=709709](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sessionId=atwub7ZLhLAeN6sqpEUL5mogef10?mid=news4058bbtSn=709709)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가상자산 압류한다

[연합뉴스, 이상식기자, '23.12.20']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083600530?input=1195m>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 신청시간: 돌봄연계 신청시점 4시간 전 → 긴급돌봄(2시간 전)
- 이용시간: 이용시간 2시간 이상 → 단시간돌봄(1시간 이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20']  
[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sessionId=atwub7ZLhLAeN6sqpEUL5mogef10?mid=news4058bbtSn=709717](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sessionId=atwub7ZLhLAeN6sqpEUL5mogef10?mid=news4058bbtSn=709717)

## 아빠 10명중 3명은 '육휴'...출생아 부모 한해 모두 사용 2배 ↑

[파이낸셜뉴스, 이보미기자, '23.12.20']  
<https://www.fnnews.com/news/202312201418590093>

## 함께 키우는 즐거움, 공동육아나눔터

- 지역 주민센터·아파트 유희공간 등 활용,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풍앗이'
-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 협력, 내년 전국 435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22']  
[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mid=news4058bbtSn=709722](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mid=news4058bbtSn=709722)

##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저출산 기금' 도입 검토

[YTN, 김혜은기자, '23.12.26']  
[https://www.ytn.co.kr/info/0103\\_202312261641144246](https://www.ytn.co.kr/info/0103_202312261641144246)

## 주 3일 출근+2일 재택...저출생에 '육아 재택 근무제' 도입 검토

[JTBC, 배양진기자, '23.12.26']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7922](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7922)

## 프랑스처럼 '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세금·복지 혜택 추진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23.12.27']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12/27/SPEEYEWJEJCSFOTETRBAQ7RSE/>

##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무세요"

-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연장
- 24세 이하 위기입산부는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28']  
[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mid=news4058bbtSn=709734](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mid=news4058bbtSn=709734)

## 여성가족부, 2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 낮춘다

[사민일보, 이태우기자, '24.01.02']  
<https://www.sa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6734564504>

##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 (중위 150%이하 가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1.02']  
[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mid=news4058bbtSn=709741](https://www.mogef.go.kr/nw/rpd/nw_s001cd.do?mid=news4058bbtSn=709741)

## '맞벌이 부부' 양육비 부담 낮춘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연합뉴스, 이상식기자, '24.01.02']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2056400530?input=1195m>

## 30대부터 남녀 고용률 역전...'여성 일자리 안정돼야 저출산 해결'

[한겨레, 정형은 기자, '24.01.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abour/1122643.html>

## 서울 초등학교 2곳 다문화학생 비율 70% 넘었다

[연합뉴스, 서혜림기자, '24.01.07']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5132500530?input=1195m>

##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은?

[한신신문, 강준혁기자, '24.01.08']  
[https://www.hanshin.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6272](https://www.hanshin.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6272)

## "한부모 가족 자녀 '고교 졸업' 때까지 양육비 지원"

[경향신문, 김한성기자, '24.01.10']  
<https://www.khan.co.kr/local/jeonnam/article/202401102114005>

## 저출산 해결 최우선 과제는 '양육비'...부모급여 대폭 인상

[뉴스투데이, 이송준기자, '24.01.11']  
<https://www.enews24.com/news/article/view.html?dxno=2078106>

## 가족관련 법안 동향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생활·돌봄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정의원 등 11인)	2024-01-09	아이들을 건강할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특히 세계 최저 출생률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더욱 커졌음.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가정만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동·청소년맞춤돌봄지원법안 (김민정의원 등 18인)	2023-12-28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기초학력 미달 등 다양한 이유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다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과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할 성장에 필요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초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육청이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돌봄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가정 폭력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01-12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심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미수범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아동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 등을 연구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이나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임시조치 중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3-12-28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1주간 합계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연장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현행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행법은 연장근로에 1주간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일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1주·1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상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53조 및 제5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2인)	2023-12-26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육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올해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의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 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안 제19조의7 신설).

##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http://www.kihf.or.kr)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명	보도일	내용	기사링크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한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관리이행원)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체결	2023-12-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양육비를 받지못해 양육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및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체결	<a href="https://www.kihf.or.kr/web/lay1/bbs/S11T04C105/A/15/view.do?article_seq=1115105&amp;cpage=1&amp;rows=10&amp;condition=TITLE&amp;keyword=">https://www.kihf.or.kr/web/lay1/bbs/S11T04C105/A/15/view.do?article_seq=1115105&amp;cpage=1&amp;rows=10&amp;condition=TITLE&amp;keyword=</a>

## 가족관련 연구 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영국 부모의 일·생활 균형 정책: 최근 변화와 쟁점	일·생활 균형은 일과 일 이외의 개인적인 삶 간에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으로 현대사회 노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였다.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일·생활 균형을 특한 나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사회의 지원 없이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부모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은 출산 여성에게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사도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및 파트너에게는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생활 균형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양산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각국의 노동시장 환경, 가족 문화, 제도의 형태, 활용성 및 보장성에 따라 이를 달성하는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영국 정부는 2019년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개편안을 마련하여 개인, 각종 규모의 사업장, 부모 및 여성 권리 단체, 노동조합, 학계 등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개요 및 최근의 논의에 대해 소개된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쟁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보장지표,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 href="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163">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163</a>
가족·돌봄	우리사회 초과근무 현황과 정책과제	초과근무는 개인의 일상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승진 및 직무 배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고착화시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초과근로시간이 0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근무 근로자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초과근로근로자 비율의 경우 남성, 20대 이하 및 30대, 용역/정규직/파견직/기간제/일자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로근로자 비율이 높았음. - 초과근로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남성, 50대 및 60대 이상, 용역/기간제/파견직 일자리, 대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높았음. - 초과근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40대,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남. - 고령층의 장시간노동, 산업별/사업체규모별로 상이한 초과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양상 등 초과근로가 일어나는 양상에 대한 다각도적 접근을 통한 정책대안이 요구됨.	「KWDI 브리프 89호, 2023. 12.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 href="https://www.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p=1&amp;idx=131892">https://www.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p=1&amp;idx=131892</a>
	양육, 자립의 이중고: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 부모 지원 과제	이 글은 해외의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를 탐색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대응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한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청소년부모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그 결과 주요국에서는 통합적인 지원 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조하는 점이 확인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육, 훈련을 통한 청소년 부모의 자립이 청소년부모 지원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연구, 제119호, 2023년 4호,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 href="https://www.kwdi.re.kr/publications/journalView.do?p=1&amp;idx=131887">https://www.kwdi.re.kr/publications/journalView.do?p=1&amp;idx=131887</a>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 제도 정비 방향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도는 민법 제정 이래 후자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가족변화 및 부양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부양제도의 현실의 부양할, 그리고 가족 부양 이슈를 고찰하고, 사회적 부양 관련 법적 현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가족변화에 대응한 사적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모색하였다.	「KWDI 여성슈퍼이퍼, 2023. 11.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 href="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amp;idx=131861">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amp;idx=131861</a>	